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37443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테마파크जूजू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7-42(관산동)  
대표이사 최철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원지영, 이은미  
피 고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대표자 이사 임순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국화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대표이사 최철영)는 2013. 9. 1. 동물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양시 덕양구에서 '테마동물원 쥬쥬'(이하 '원고 동물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하여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사업, 각종 동물 보호 계몽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 보호 단체이다.

다. 피고는 2013. 8. 3.부터 2014. 4. 21.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withanimal.net>)에 아래 표와 같은 게시물들(이하 '이 사건 게시물들'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였다.

순번	작성일	제목	내용
1	2013. 8. 3.	쥬쥬와 KAZA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함	별지 제1항 기재
2	2013. 9. 25.	[동참요청] 1년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실! 10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별지 제2항 기재
3	2013. 9. 29.	[동참요청]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별지 제3항 기재
4	2013. 9. 30.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쥬쥬에 요구한다	별지 제4항 기재
5	2013. 10. 2.	14:00 동물학대동물원 쥬쥬 전격고발 기자회견	별지 제5항 기재

6	2013. 10. 7.	카라, 포천시에 쥬쥬와 MOU 중단 요청	별지 제6항 기재
7	2013. 10. 10.	KAZA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별지 제7항 기재
8	2013. 10. 14.	쥬쥬동물원에 대한 검찰 조사 시작!	별지 제8항 기재
9	2013. 11. 19.	2013년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아보아요!	별지 제9항 기재
10	2014. 2. 14.	철창 속의 소리 없는 눈물 "두발로 아장아장 걷는 원숭이들이 귀여우십니까?"	별지 제10항 기재
11	2014. 4. 3.	쥬쥬동물원 동물들의 고통을 알리는 메시지 카드 배포하기에 참여해주세요	별지 제11항 기재
12	2014. 4. 21.	[쥬쥬동물원 고발 진행상황] 사자 이빨이 안보여요! 사자 송곳니는 어디에?	별지 제12항 기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출감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악어 관련 부분]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이 2010. 4. 22.부터 2013. 10. 4.까지 악어쇼 중 뽕족한 막대로 삼크로커다일을 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하였다.

② [오랑우탄 관련 부분] 원고 동물원 내 '우탄이'라는 오랑우탄의 힘이 세져 사육사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2012년경 최○○ 과 수의사 조○○이 우탄이의 양손목 인대를 절단하였다. 또 다른 오랑우탄인 '오랑이'도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③ [사자 관련 부분] 원고가 사자를 동물쇼에 이용하면서 조련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

### 3. 판 단

#### 가. 악어 및 사자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사실적시 여부)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①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서는 "삼크로커다일에 대한 학대·가혹행위"(갑 1-5), "삼크로커다일에 대한 추가 학대정황"(갑 1-12)이라는 추상적·평가적 표현만이 등장할 뿐 '2010. 4. 22.부터 2013. 10. 4.까지'라는 일시나 '뽀족한 막대로 삼크로커다일을 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하는' 등의 행위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①항의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와 같은 표현 자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물쇼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바로 '학대·가혹행위'라는 전제하에, 동물쇼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갑 10-3 및 을 7-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동물원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에 뽀족한 막대로 삼크로커다일을 여러 차례 찌르고, 막대로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갑 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 동물원에서 피고가 말하는 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③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물들에 '원고 동물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관찰해 보면,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다'(갑 1-12)는 내용이 등장하기는 하나, '조련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자 2마리의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내용은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 원고 동물원 사자의 사진이 제시된 다음에 나오며, 그 바로 뒷부분에는 "사진에 나타난 사자 이빨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야생동물 전문가, 생물학자, 수의사, 치과의사, 의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동물원 사자가 송곳니가 없는 원인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앞서 본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③항의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오랑우탄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들을 통하여 원고 주장의 ②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게시물들에 "우탄이의 인대를 끊은 것은 사실"(갑 1-1), "우탄이 수술은 ○○○수의사가 실시"(갑 1-3), "오랑이는 침을 뱉음. 그럴 때마다 때림."(갑 1-3) 등의 표현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 측이 우탄이의 인대를 절단하였다.', '원고 동물원 조련사가 오랑이를 폭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적시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 '오랑이' 관련 부분의 경우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리고 '우탄이' 관련 부분의 경우, 원고는 주된 증거로 갑 2(불기소이유서, 나머지 관련 증거인 갑 3, 15의 각 기재는 갑 2를 근거 삼아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

고, 피고의 가처분이익을 기각하는 내용이다)를 제시하나, 기본적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피의자가 주장하는 반대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그 불기소이유는 '사체검안서에 우탄이의 사망원인이 악성림프육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박제를 진행한 이철수가 우탄이의 손목 부분에 외상이나 인대 절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나 관련 전문가들이 '손가락' 부위에 손상을 주어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영똥하게도 '손목' 부위에 손상이 없다는 것을 '손가락 인대 절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었더라도 얼마든지 림프육종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손가락 내지 다른 손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손가락 인대 절단 그 자체가 사망의 결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사망원인이 손가락 인대 절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정을 '손가락 인대 절단이 없었다'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갑 2, 3, 15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우탄이' 관련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3, 6, 11, 13-1, 13-2,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인 다음 ㉠, ㉡, ㉢항을 종합하면, 피고의 '우탄이'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 피고의 공식 이메일로 접수된 제보에는 '원고 측에서 우탄이의 인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 성명이 '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동물원을 담당한 수의사의 본명과 일치한다. 위 수의사는 방

송에서 '조윤주'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원고 동물원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위 제보에는 수술의 동기("세네번 탈출이 있으니 수술을 결심한 듯"), 수술 장소의 모습("알코올, 핏자국, 투광등... 통로에서 수술, 수술대가 따로 없음"), 수술 후의 과정("전 직원 불러서 소문이 맞으니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함") 등 단순히 상상으로 꾸며내기 어렵다고 보이는 구체적 정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2012. 5.경부터 2014. 1. 24.까지 수회에 걸쳐 '우탄이'가 동물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육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원고 동물원에서 오랑우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손가락 가운데 인대를 잘라 손을 짝 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실렸다. 특히 한겨레신문 소속 최○○ 기자는 검찰에서 피고와 별도의 루트를 통해 '우탄이'의 인대 절단사실 등을 제보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30687).

㉡ 원고 동물원을 방문했던 한 관람객이 2010. 8. 4. '아파서 치료 중이라던 오랑우탄 손가락을 보니 철심이 박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등 '우탄이'의 손가락이 정상적이지 않음이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목격되었고, 이에 피고가 외국 동물전문가들에게 '우탄이'가 철조망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내 손가락 이상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일반적인 오랑우탄이 나뭇가지를 잡는 모습과 '우탄이'가 철조망을 잡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회신되었으며, 이들 전문가들은 '우탄이'의 이러한 모습이 손가락 인대의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판장	판사	이우철	<u>이우철</u>	
	판사	장원지	<u>장원지</u>	
	판사	최지현	<u>최지현</u>	









## 2. 2013. 9. 25. 「동참요청」 1년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실! 10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 일람용

공지사항

Home | 기관안내 | 공지사항

제목: 【동물보호법】 1년간의 치밀한 준비의 결실! 10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작성자: KARA 작성일: 2013-09-25 조회: 2,967



### 언제까지 불쌍한 동물들을 보며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올바른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심과 참여도 바라는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동물들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  
이제는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한오사 물리치이아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러한 것인 이상에 이어가 노너 국로이법공관  
제안을 주신거로 개입을 하구어온 주 입공이이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차별성 자세히 살펴볼까요?

#### 1. 아름다운 협력의 결과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1년여 간의 오랜 준비 끝에 마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단체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연구 모임, 청년단체부터 카페/유튜버/국회연락처 등이 공동 주최한 5차회의 국회토론회 등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의 단초가 되며 국제 전문가가 주관한 실무·추진위원회 등 많은 노력과 공의 결과물입니다.

상당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단체 등으로 이번 개정안은 연간에서 이차까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추진과 세심도였고 국제적 동물보호법도 두루 참고했습니다. 상한을 반영한 법 개정에 의해 근래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들을 분석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내외국, 적절한 법률과 복지 규정 등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법 등의 공문법도 참고했습니다.

시나 A형 개정이 포괄적이어서 오랫동안 동물보호법 세·개정위원회는 바이오톨 산도문자적사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엔  
중 가장 아름다운 개정안(안.안)」 이 내일이나 통과될 예정입니다. (안사라도 이 개정안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나아갈 방향이  
제정된다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도 바라는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이라는 의미가 새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 2. 국내 최초로 정당들 초빙하여 새누리, 정의당, 민주당 공동발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당들 초빙하여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안)을 논의하는 문정당(비교과목)을 중심으로 한정당 연합추진회의  
신선기(비교과목)는 「안공회 비정당추진회」를 같이 실시되었고, 이안정공회 「안공회」는 새누리(비교과목)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화당(안)도 참여해서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는 새누리(비교과목)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기초단체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새누리(비교과목)의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이공회(비교과목)는 새누리(비교과목)의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안공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성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하나. 법의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 둘.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권고에서 의무로!!
- 셋.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넓히다
- 넷. 동물학대금지 조항을 구체화, 세밀화 및 강화
- 다섯.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여섯. 복지 원칙에 따른 동물실험만 가능
- 일곱. 농장동물들을 위해서도 복지 원칙을 제시
- 여덟. 아무나 동물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할
- 아홉.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과 자질을 높이고 의무를 강화
- 열. 포획은 더 엄하게, 학대법 예방과 교육, 치료까지!

개성안 자세히 보러가기

강력한 동물보호법! **진짜 진짜 동물보호법!**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위헌심과 국회 예산 위원회에 격려와 입안 통과를 요청하는  
강력한 당론의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이 자료를 최대한 많은 분들과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설 개정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개성안은 현실의 여러군데 모든 아픔을 풀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많은 내용도 포함되어 동물은 수컷에 사용하는 행위가 인간 등시, 화살을 동물실험을 보편화 금지하거나 수컷만 보호를 가하는 식별의 금지 같은 규약 등이 여러개 포함된 것이 개성을 넘어서는 위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성안으로 인해 학대 금지 조항이 여러 갈래되고, 동물 복지 기준도 상향된다면 동물복지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굳건할 수 있고 입안 상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후에도 동물보호법의 관련법의 제정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력한 동물보호법! 꼭 동물법 통과시켜주세요!  
동물법을 반대하거나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안 제정되는 것입니다!  
정확요소는 개성에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동물보호를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보내주세요

메시지 보내주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내실 내용을 전달드리고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향요청】  
하나로되기를 바라고 오랑가만은 강태를 믿는 민생을 위하여  
물어라

3. 2013. 9. 29. 「동참요청」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공지사항

일람용

KARA | 100% 동물보호 | 공지사항

제목: [2013.09.29]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작성일: 2013. 09. 29.

분류: 100%

KARA: 동물보호 100%

때리고 찌르고 인대를 끊은 만행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인구밀 포화나 기후변화 때문일지라도 동물들에게 위협당하여 고통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받는 동물들에게 인대를 끊어주는 수컷들이 국제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동물들을 위해 때리고 찌르고 인대를 끊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바다코끼리 수컷들이 동물에게 위협을 받아가면서 지니 내려야 하는 많은 해로운 보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시냇물에서 중요한 어류들을 잡아먹고 번개 죽었습니다. 온 세계는 행동해 같이 갑시다!! 이제 수컷보릿을 위한 만행, 인대를 끊고 바닷속 동물들의 만행이 만행하고 바닷속을 돌아 다니고 있는 바닷속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연법 재점안:**  
 "동물연 법은 이용자의 강행법 목적으로 동물 연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부당한 훈련 등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동물 수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련법을 통해, 새노자가기를 통해 새로운 다문화 같은 것만,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동물들에게서 허탈한 다문화 같은 영향을 해안하고 만들어 지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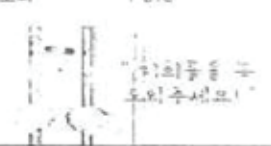


4. 2013. 9. 30.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쥬쥬에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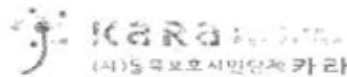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제목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쥬쥬에 요구한다.		
작성자	KARA	작성일	2013-09-30
		조회	1616

지난 9월 28일 카다에서 제공한 영상이 505 0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테마동물원 쥬쥬에서 바다코끼리 탈상 관련 재발방지 및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쥬쥬동물원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그동안 카라에서 요구했던 것들에 비해 너무 미약한 내용이라,  
 오늘(9월 30일) 카라에서 쥬쥬동물원에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쥬쥬동물원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카라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시당시 중구 신당동 373-20

☎ 02) 3482-0990 / F: 02) 3482-8835 / [www.kara.org](http://www.kara.org) / [info@kara.org](mailto:info@kara.org)

문 시 번 호 : 1309-타A-3  
 발 신 일 자 : 2013년 9월 30일  
 수 신 : 테마동물원 쥬쥬 관리팀 위장  
 발 신 : (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계경  
 제 목 :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쥬쥬'에 요구함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테마동물원 쥬쥬가 바다코끼리에 대한 권호원 동물학대공  
 통에 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물권을 짓는 관행적인 포획, 번식, 사육에 갖  
 은 관찰과 야생은 온 것에 대한 노력적인 책임을 지고 다급히 힘든 조치와 위한 것을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 개인의 학대 행위 이전에 동물 공원과 이를 위한 조  
 원은 무리하게 건설해 온 테마동물원 쥬쥬의 동물원 운영 방침과 태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경성인: 사카카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할 것.
2. 계절별은 모든 동물 조련-공원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후 해당 동물:의 복귀와 거  
 분에게 대한 책임있는 계획은 반드시 포함될 것(동물 조련과 공원의 즉각 중단은 이미  
 지난 6월 25일 1차 의견서로 통해서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
3. 동물학대에 대한 노력적인 책임을 지고 권장 사육은 포함, 관리책임자에 대한 남다른  
 면면 인사 조기와 정계가 이루어질 것.
4. 테마동물원 쥬쥬의 원장과 임원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회장직과 시무 등  
 운영 일에서 즉시 사퇴할 것. 동물은 학대하는 동물원의 원장과 임원은 KAZA의  
 운영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



5. 내셔널지오그래픽 유종의 종래적 개선 제안을 위해 카라가 6월 25일 1차 의견서와 9월 5일 추가 공문 등 두 번에 걸쳐 요청한 데에 부응 관련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시안시회에 개선 의사를 보여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함.

이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국내외적으로 상회권 대응할 예정입니다. 등.

첨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6월 25일 1차 의견서, 공문 1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or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는 1965년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 14개 동물원, 5개 수족관, 1개 콘서트, 1개 수족관, 1개 컨서트 등 22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2012년 12월 이후 해외 유종의 회원과 동맹이 KAZA의 회원직을 잃고 있으며, 현재 해외동물원 유종의 추시부조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보낸 1차 의견서 내용]



5. 2013. 10. 2. 「14:00 동물학대동물원 쥬쥬 전격고발 기자회견」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열람용

제목	14:00 동물학대동물원 쥬쥬 전격고발 기자회견		
작성자	KARA	작성일	2013-10-02
		조회	114

오늘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홀에서 쥬쥬동물원에 대한 고발조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배포될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학대 동물원 쥬쥬동물원에 대한 전격 고발조치**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은 테마 동물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 조치 후, 10월 2일 14:00 환경재단 레이철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영상과 제보글을 공개하며, 사실 요지 및 고발 경위를 발표한다.

테마동물원 쥬쥬는 2003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삼크로커다일(학명 *Crocodylus siamensis*) 42마리를 수입하여 먹이소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학명 *Pongo pygmaeus*)을 200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반입하여 2003년부터 각종 쇼에 이용하고, 2011년 러시아 해양동물원연구센터인 킨로연구소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코끼리(학명 *Odobenus rosmarus*) 2마리를 연구목적으로 반입하여 현재까지 동물쇼에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학명 *Ursus thibetanus*)에게도 동물쇼를 하며 동물학대·가혹행위를 지속해 왔다.

테마동물원 쥬쥬는 1) 바다코끼리들에 대한 학대·가혹행위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반입목적 외 사용, 2) 삼크로커다일에 대한 학대·가혹행위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목적 외 사용, 3) 오랑우탄의 인대를 끄는 등의 학대·가혹행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폐사·미신고 및 오랑우탄의 불법 유입 및 목적 외 사용, 4) 동물쇼 광고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동물쇼 내지 동물쇼를 위한 조련·과징에서의 학대를 유발하고 학대·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처의 악화 또는 동물 본연의 삶을 왜곡하는 고통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들을 다수 사망케하여 그 감소를 촉진시켰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의정부지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테마동물원 쥬쥬에서 고충받고 있는 삼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에 대한 물수, 반달가슴곰 역시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기소 전이라도 물수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의정부지검에 요청한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쥬쥬 동물원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구해주세요!!

- [동물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연대서명 ➡ 바로가기
-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위한 의원들에게 격려/당부 메시지 보내기 ➡ 건본메세지 바로가기
-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쥬쥬'에 요구한다.] 아고라 서명 ➡ 바로가기

Facebook
 Twitter
 me2DAY


6. 2013. 10. 7. 「카라, 포천시에 쥬쥬와 MOU 중단 요청」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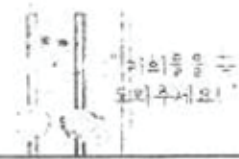
---

열람용

제목	카라, 포천시에 쥬쥬와 MOU 중단 요청		
작성자	KARA	작성일	2013-10-07
		조회	1,562



**KARA**  
(사)동문보포시민단시카라



이름을  
알려주세요!

태마동문원 쥬쥬는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라에서는 쥬쥬동물원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청, 동물학대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권법 제정 발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쥬쥬와 같은 동물학대 동물원의 인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쥬쥬동물원은 현재 포천시와 MOU를 맺어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라에서는 포천시장님께 쥬쥬동물원과의 MOU체결을 잠정 중단하고 재고를 바라는 공문을 지난 10월 4일 발송하였으며, 포천시에서 오늘(10월7일 오전) 수정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포천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람용

7. 2013. 10. 10. 「KAZA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공지사항

Home | 개인정보 | 공지사항

제목: KAZA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작성자: KARA 작성일: 2013-10-10 조회: 1750



이메일: info@kara.org / 전화: 02-5462-0299 / 팩스: 02-5462-6835

발송일자: 2013년 10월 9일 (수요일)

담당: 이원창 정책국장

학대동물원 주주 원장이 동물원수족관협회 회장? 동물보호단체 '카라' 즉각 사임 요구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8월 3일, 살아있는 오랑우탄의 인대를 끊는 등 다수의 동물학대를 상습적으로 자행한 테마동물원 주주동물원의 실태를 고발하였다. 주주동물원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신빙성 있는 제보에 기초한 개선 요구와 의혹해소 및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한 '카라'의 자료요청에 주주동물원 측이 응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었다. 이어 '카라'는 8월 28일 언론에 전국민의 공분을 산 주주동물원의 바다고래 학대영상을 전격 공개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CITES 보호종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주주동물원을 고발 조치하였다.

주주동물원의 사태로 드러난 열악한 동물원 복지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의 내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KAZA의 회장직은 금년 문제가 제기된 주주동물원의 최실경 원장이 맡고 있다. 이에 '카라'는 이미 9월 30일 최실경 회장의 회장직 사퇴를 물론 운영 일선에서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10월 10일(목) KAZA에서는 주주동물원의 최실경 원장 지진 사퇴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열린다. 이 이사회를 통해 동물학대 동물원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주주동물원의 원장은 마땅히 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만일 주주동물원의 원장이 KAZA의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카라'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협회와 이틀으로 동물학대를 공식적으로 용인하며 내부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주 뿐 아니라 KAZA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다각도의 대응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카라'는 주주 동물원이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상, 주주동물원과의 대형 동물원 설립 MOU나 친형 법인 모친사도 즉각 MOU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넬 예정이다.

'카라'는 동물학대를 자행하지 않고 동물복지에 힘쓰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 회원사에서 KAZA의 신임 회장직을 맡아, 이번 주주동물원의 동물학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동물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발을 내딛을 것을 요구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 742호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3-20  
☎ 02) 3482-0999 / F: 02) 3482-8835 / www.ekara.org / info@ekara.org

문서 번호 : 1310-다A-5  
발신 일자 : 2013년 10월 10일  
수 신 :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발 신 : (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 목 : 허영행 회장의 자진 사퇴 및 KAZA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함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테마동물원 주주 사태로 드러난 동물원에서의 동물학대와 열악한 동물복지 문제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차원에서 총체적인 개혁과 쇄신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 쇄신은 그동안 테마동물원 주주에서 발생한 모든 동물학대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제아 하는 책임을 완강이 금일 10월 10일 열리는 KAZA 이사회에서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운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카라'는 동물학대를 자행하지 않고 동물복지에 힘쓰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 회원사의 대표자가 KAZA의 신임 회장직을 맡아, 시민사회와 열린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이번 테마동물원 주주의 동물학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동물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 발을 내딛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테마동물원 주주의 원장이 KAZA의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카라'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가 협회의 이름으로 동물학대를 공식적으로 용인하고 내부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KAZA의 이와 같은 현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다각도의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동물공연의 폐지를 필두로 국내외 열악한 동물원 동물복지 현실을 근본으로부터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협을 제시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응답하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물원수족관협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낱말이 응대하는 국민의 동물보호, 생명존중 의식에 부합하는 KAZA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청합니다.

(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로 주주동물원의 동물학을 도와주세요!!

- [동물원] 동물의 죽음을 위한 언어시위 #바보되기
-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민들에게 고라! 일부 메시지 보내기 #전면개정지 바보되기
- [동물학대 동물원 테마동물원 주주에 요구한다.] 이고라 시위 #바보되기


Facebook Twitter my2day

8. 2013. 10. 14. 「쥬쥬동물원에 대한 검찰 조사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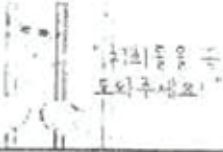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제목	쥬쥬동물원에 대한 검찰 조사 시작!				
작성자	KARA	작성일	2013-10-14	조회	2,949



**KARA**  
(사)동물포로서민인티카라



카라는 지난 10월 2일 테마동물원 쥬쥬를 CITES종에 대한 동물학대 등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 통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함께 여론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담당 검사실과 사건 수사를 맡은 고양경찰서 측에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동물학대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조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담당 검사실 031-909-4511  
 고양경찰서 담당 부서 031-930-5262

열람용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수신 : 변호사 박희준 귀하

제 목 : 고소(고발·관청·대서)사건 수사지휘통지

1. 귀하께서 제자동물원유주 차 2명 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은 당청 2013년 제30687호 로 수리되었습니다.
2. 당청에서는 수사필의상 한 사건을 2013. 10. 7. 경기도 및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3. 12. 6. 까지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이 종결되면 담당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판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4. 사건 종결시까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검사스(T : 031)909-4511)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장 사 : 최근영

인

호랑-21.3-314 11030-84184067301226

010-10-07 77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로 동우동물원의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 [동물원입] 동과 추구를 위한 현대서명 <> 바로가기
- [동물보호법] 견련 개정을 위한 의원들이거 격려/정부 예산지 보내기 <> 견본에서지 바로가기
- [동물학대 동물원 대안운동원 주주]에 요구한다. | 아고라 서명 <> 바로가기

Facebook

Twi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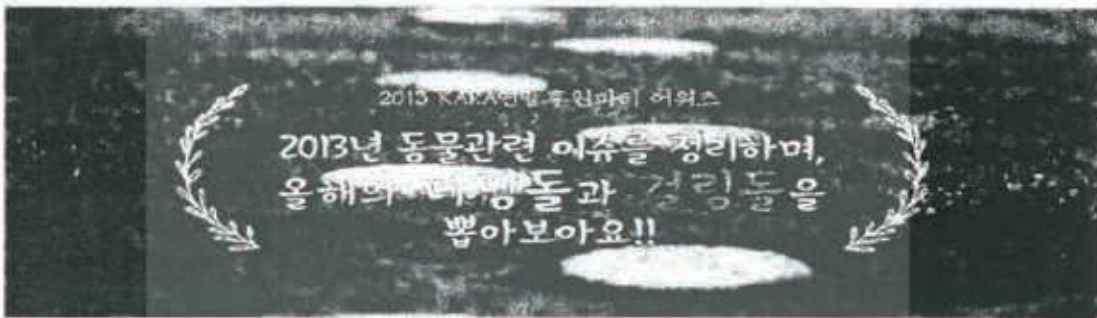
me2day

9. 2013. 11. 19. 「2013년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아보아요!!」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목 2013년 마무리하며 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아보아요!!  
 작성자 KARA 작성일 2013-11-19 조회 1,571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카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학년에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 모금회를 개최하였고, 길고양이 TNR 지원사업 시작, 귀리 자여 서포터즈 출범, 파산동물실험반대 캠페인, 동물사랑 교과서 '동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출산, 찾아오는 동물보호 교육 수업, 제왕 절강의 날 행사, 개들이 반사워키프레 강아, 특별한제인 '광화문건강', 감사일일교육 워크숍, 유류동물원 고양, 동물보호법에감사형 교육, 모서반대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보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카라에서는 2013년 동물보호활동에 도움을 주신 분에게 디딤돌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분에게 걸림돌을 뽑고자 합니다.

후보를 보시고 댓글로 의견 많이주세요.  
 댓글을 취합하여 최관심분야 직접 뽑은 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겠습니다.  
 (댓글은 카라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2013 KARA연말후원파티 어워즈  
**디딤돌 후보**

① 서울시 동물보호과

② 재동아 야생방류 시민위원회

③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발의한 아아 여성의원 노봉

④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한 강동구청



디딤돌 후보 1 서울시 동물보호과 : 장년 9월이 산송되어 가장 앞서가는 동물보호정책을 만들고 지자체 최초로 인력이 많아진 동물보호정책 세우고 현재 연구위원을 찬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한 강동구청이라고. 산송 부서에서 여러가지에

공지사항 9월 19일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방법.

후보를 보시고 댓글로 의견 많이주세요.

댓글을 취합하여 회원님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뽑겠습니다.  
(댓글은 카라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Facebook Twitter me2DAY

열람용

10. 2014. 2. 14. 「철창 속의 소리 없는 눈물 "두발로 아장아장 걷는 원숭이들이 귀여우십니까?"」

공지사항

열람용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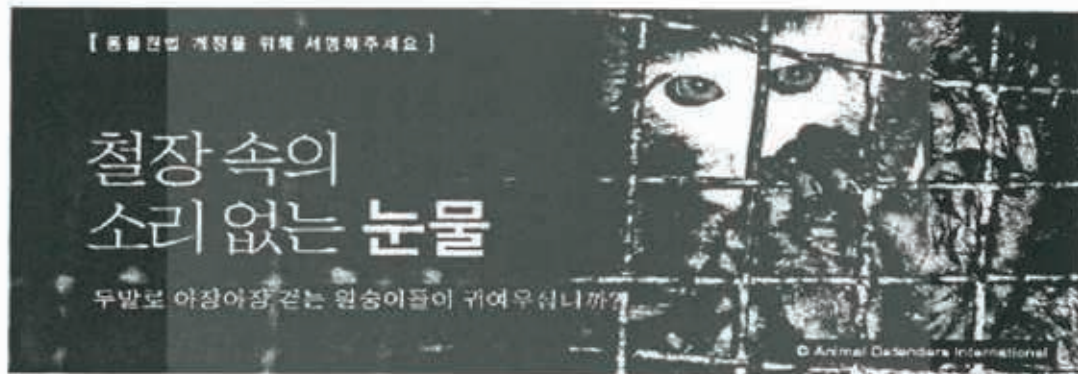
제목: 철창 속의 소리 없는 눈물 "두발로 아장아장 걷는 원숭이들이 귀여우십니까?"

작성자: NURA

작성일: 2014-02-14

조회: 1178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cy Center



열람용

교복을 입고 두 발로 아장아장 걷는  
원숭이 학교의 원숭이들이 귀여우십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구경을 가시나요?

원숭이학교의 원숭이들..  
그들은 이렇게 훈련됩니다.

잡제 1호증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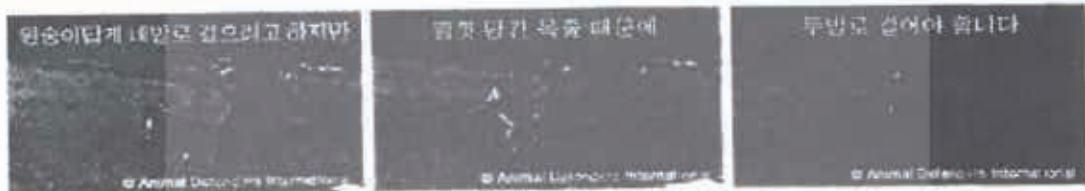




손을 움직이지 못 하도록 양손이 위로 묶인 채 걷는 훈련을 받은 원숭이들이 모습 힘들고 어색하여 여러 문제로 도망쳐 왔다. 최대한 두 발로 달릴 수 있는 만큼 도망칠 기회를 주고 최대한 걸음 걸이 때문에 걸음은 자연스럽게 걸린다. 네 발로 가यी 하는 것만이라도 불부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으로 두 발로 서 정도를 원한다면 이런 할만한 조일래?

채들이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산원숭이학교, 추추동물원, 제주 퍼시픽랜드 등에서는 여전히 동물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을 위해 원숭이는 두 발로 뒤로 뛰어 사람이 될 만큼 훈련부터 하도록 강요 받습니다. 공연에 주로 이용되는 일본원숭이 (Japanese Macaque)는 네발로 걷는 사족보행 (quadrupedal) 동물입니다. 사육지형 무알로 걷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공연을 위해 원숭이들은 가혹한 훈련을 받습니다. 두 발로 걷는 훈련이 되면 불구나무서기, 뒷발 일으키기, 갈대타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훈련이 이어집니다. 이런 행동들은 원숭이들의 본래의 행동이 아니라, 당장 인간 흉내를 내게 하여 웃음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로 훈련됩니다. 두 나라에서는 동물지 전시나 동물쇼에 이용하던 동물에 복지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동물행 및 공연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제하는 법적인 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육사 및 방문객의 안전에 대한 규정도 없이 동물원과 동물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원 실 수 있으면 동물원 개장도 동물쇼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마약 소버지 민지도 부족해서 원숭이학교와 같은 동물공연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동물쇼는 없습니다.

동물쇼는 곧 동물학대의 결과입니다.

동물쇼만큼 인지도가 뛰어난 행차류, 공연과, 공연과, 마스코트 등이 있습니다. 알려진 동물이어야 흥안이 인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복잡한 사회구조를 이루어 나오기까지 많은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를 할때 할 줄 알고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갈식과 모음은 다른지인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그윽히 자연스러운 행동에, 양하는 흥만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인 보호우마는 극심합니다. 조동물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호르몬에서 영혼 상처 등의 악화로 야생에서 사는 동물보다 훨씬 질병 혹은 결구가 많을 수

단자, 신발을 신고 줄잡기를 하거나 불구나무서기를 할 줄도 모르고 무스칼스리로 모습을 보기 위해 무리는 원숭이와 지면스리들 값을 파고하고 양성을 부자연스럽게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대 위에서 사람이 될 것을 보고 사육 흉내를 내는 원숭이들의 진짜 해 온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 권리가 위반된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결혼 시범법 등 동성결혼은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추세이다.

〈야생동물 등의 동물을 이용한 공연을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

아시아	유럽	미주	중남, 남아메리카
인도, 이스라엘, 타이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모로코,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2015년 부하 실명)	미국 18개 주, 캐나다 28개 지방 자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크리스티카, 파라과이, 페루

조련사들은 동물이 자신은 상의사제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심리와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영리한 동물들은 사육사의 구경하는 무대 위에서 조련사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들은 무대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무대 위에서 벌을 곱함의 더 크다는 사실도 안다.

어린 관중이들은 또 다른 형태의 학대상황에 처해있다. 귀여움을 얻어 주는 어린 동물은 방문객들의 조카아라는 명목으로 영예롭게 칭찬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새학살이 고도로 인공화된 원숭이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환경에 고립시키거나, 무조건적으로 성년 노르웨이아를 얻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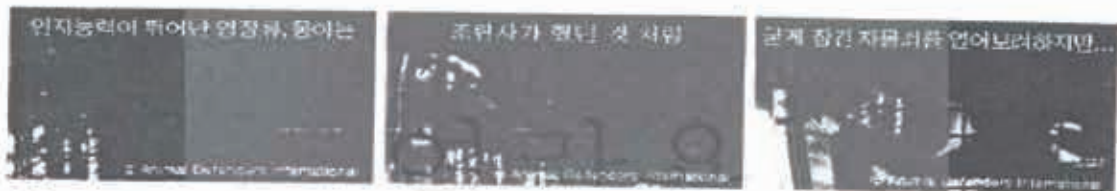
영장류 전문 세계적 석학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영장류 쇼의 문제

(사육사로부터 인양된 케라에서는 유주, 영장류, 영장류 동물사에 대한 국제영장류학회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케라에서 영장류 쇼의 주요한 사육사로서 영장류 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국제영장류학회(International Primatological Society) 학장이자 영장류 연구와 세계적인 석학 미셸라 에스트로 교수는 유주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장류 쇼에 대한 영장류학에 대한 이해와 사육사로부터 영장류 쇼의 전문적인 의견과 제안을 보내 주셨습니다.

- 웃을 입고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지주를 무리한 것
- 동물의 수단으로 (동물에게) 불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 해당 동물에 대한 생물학적, 생태적 정보를 대중에게 잘못 전달 하는 것
-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공연으로 인간과 영장류 사이 친밀과 감정의 위장성 노출

국제영장류학회와 유주는 국제영장류학회에게 원숭이의 목에 끈을 연결하여 조련사가 원숭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연을 보는 관람객들에게 원숭이라는 종에 대한 생태적,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이 마치 그들이 사람인 양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원숭이학교의 '몸이'는  
자갈줄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른 원숭이들이 무어런트하고 높은 케이블에 걸맞고 지평선을 느껴 달성을 시도한다.

옆과 개개 동물을 건너뛰어 사슴에 의해 공격된 몸입니다. 발악하고 무어런트한 원숭이 수컷은 어미들은 귀찮은 스톱워드로 출간을 해도 자신의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몸을 뛰어 캐시대로 옮겨져 혼자 걷는 몸이도 대부분이 시간을 증가하길 열거나 실수를 이후 물어뜯으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몸을 이용해 몸이 받는 것과 같은 지배행동(Dominant Behaviour)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지배행동은 원숭이에게서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어미사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현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몸의 원숭이들과 대화를 하고서

확히 고집을 펼 기회가 전혀 없이 아이로부터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아이는 결국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 더 이상 원숭이학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동안 이 동물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이제 조금이나마 상상이 됩니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하여 세심한 보호와 관심을 요하는 야생동물이  
국내 시설에서 학대를 받아 죽어나가고 있으며,  
우한의이 동이처럼 케이지에 갇혀 인간에게 이용만 되다  
결국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 합니다.

현재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증진방법이 국회에 개원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 환경부장관의 허가 및 위원회를 통한 동물원 심사
  - 관리를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혼란시키는 행위를 금지
  -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받을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법으로 명문화 됩니다.

작년 9월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준 유즈대공원 바다코끼리는 학대사건은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학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육장 뒤, 무대 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학대현황 고지를 돕기 위해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동물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 잠하나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서명하기

<동물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연대서명>  
어려운이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동물원 동물의 복지과 안전, 나아가 관람객과 안전까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잠하나 의원에게 격려 메시지 보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당부 메시지 보내기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참고하여 의원분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11. 2014. 4. 3. 「쥬쥬동물원 동물들의 고통을 알리는 메시지 카드 배포하기에 참여  
해주세요」

공지사항

Home | 카라-대 | 공지사항

제목 쥬쥬동물원 동물들의 고통을 알리는 메시지 카드 배포하기에 참여해주세요

작성자 KARA

작성일 2014-04-03

조회 1,370



나는 쥬쥬동물원을  
가지 않겠습니다!



동물학대로 고발당해 수사 중에 있는 테아동물원 쥬쥬의 동물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카라는 세라프리카 인근 보도 이후 쥬쥬동물원에 영구히 해임을 받고 그에 따른 복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세라프리카 확대 영상링크 클릭]. 그러나 쥬쥬동물원은 그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으며, 차경도 Animal Story라는 이름으로 운영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고발장에 기재된 동물들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라는 어떠한 응답도 없이 학대를 계속하고 있는 그들이 동물쇼를 중단할 때까지  
(쥬쥬동물원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보이콧은 쥬쥬동물원이 동물쇼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나는 쥬쥬동물원을 가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남서기 믿고먹자고 어른이 있다. 동물원으로 왜소로. 가족 신체를 계획해서는 안됩니다. 가족과 친척 주변에 지인들에게 쥬쥬동물원이라는 동물들의 현실을 알려주는 나는 쥬쥬동물원을 가지 않겠습니다. 귀도를 나누어 주세요. 특히 학생, 어린이들의 단체 방문이 많지 않으니 단체, 여행객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세우는 학교, 유치원 등에도 쥬쥬동물원을 방문하지 말 것들을 요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할 새고 광물 굴리고 광업을 하는 것은 동물계 어설피서 잡아 보려는 행동이 아닌 사람이 학대를 통해 존엄권 강 집니다. 쥬쥬동물원은 맞습니다. 아이세로 비밀 불기기를 일상은 학대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쥬쥬동물원

나는 쥬쥬동물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쥬쥬동물원의 동물들의 심상을 알리는데  
여러분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쥬쥬동물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캠페인 카드를 신청해주세요.



#### 참여대상

- ✧ 쥬쥬동물원에서 비너로 시카 조련사 워대 직내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던 분
- ✧ 동물이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용 이물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 ✧ 공개적으로 활동하기에 개인 동양산본 전시 또는 공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 ✧ 동물보호에 대해 주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 고민하셨던 분!

더 많은 참여는 모든 분들께 알려주세요!

#### 참여장소

제주도를 포선하며 전국에 있는 학교, 회사, 도서관 등  
리플렛 배포 또는 게시를 허가받은 장소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1. 캠페인 카드를 나누어준 대상, 장소를 확인한다.
2. 캠페인 카드 배포를 혼자 할지 또는 함께 할 친구가 있는지 알아본다.
3. 배신, 커넥에서 어글러 배포할지 결정하고 카드 배포 수령일 결정한다.  
최소 10장, 최대 300장 신청 가능
4.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수 있도록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수령금액 보내주시면 더 많은분의 참여를 위한 감사비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사단연계가가 / SC제일은행 176-20-112990로 송금하기
5. 신청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로 받은 카드를 배포하세요!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cy Center







열람용

정본입니다.

2016.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이경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